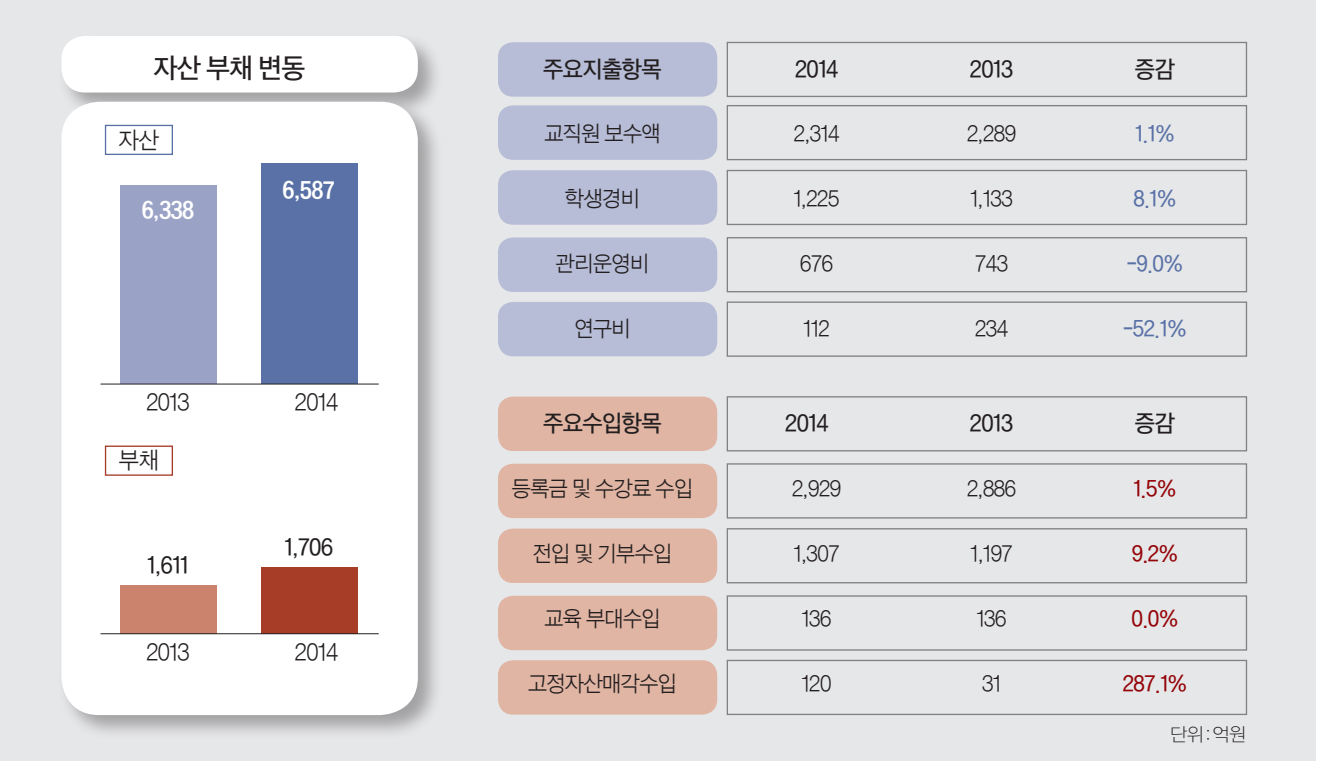


보도

2014학년도 결산공고, 134억 원 ‘흑자’ 운영비, 연구비 삭감 등은 고민거리



2014학년도 결산공고 분석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2014학년도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우리 학교의 수익구조가 외견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 유출입을 토대로 재정 상황을 바라본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순수 수입액’이 4,551억 원, ‘순수 지출액’이 4,417억 원을 기록해 134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3학년도 ‘순수 수입액’ 4,280억 원에 ‘순수 지출액’ 4,461억 원을 기록해 181억 원 적자가 났던 상황이 개선된 셈이다. 순수 수입액은 총 수입액에서 기금인출수입, 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액은 총 지출 중 기금적립금을 제외한 것이다.

또한 결산공고를 살펴보면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013학년도 6,338억 원에서 2014학년도 6,587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채 역시 1,611억 원에서 1,706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산의 세부내역 중 고정자산은 3,791억 원으로 전년대비 52억 원이 줄었고, 반대로 1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 자산이 1,531억 원으로 93억 원 증가했다. 특히 투자자산의 경우 2013년 7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4학년도 30억 원으로 늘었

다. 적립금의 경우도 같은 기간 948억 원에서 1,146억 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고정자산매각수입이 증가세인 점이다. 2013학년도 31억 원에 불과했던 이 항목은 2014학년도 1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재무처 재무회계팀 김유경 계장은 “국제캠퍼스 내 4개 필지의 토지매각에 따른 자산매각의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수입액의 경우 4,552억 원으로 전년대비 240억 원(5.5%) 증가했다. 2013학년도 2,886억 원이었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2014학년도 2,92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기부금 수입 역시 약 100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입금 수입의 경우 638억 원으로 작년 637억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출의 경우 교직원 보수액과 학생경비가 각각 작년대비 25억 원, 학생경비 92억 원이 증가했으나 관리운영비 67억 원, 연구비 122억 원이 감소해 총 운영비용합계는 4,455억 원으로 2013년 4518억 원 대비 소폭(1.4%) 운용비용을 줄였다. 하지만 적립금 인출·적립 등을 감안한 총 비용합계는 4,652억 원으로 이를 반영한 운영계산서 상의 2014학년도 당기운영차액은 100억 원 적자로 전 학년도 150억 원에서 개선됐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재무처 재무회계

팀 박성구 직원은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비용처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직원은 감가상각비에 대해 “이 비용은 직접적인 현금지출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학교 건물과 구축물의 감가상각비용으로 잡히는 비용 109억 원은 운영차액손실액인 100억 원과 비슷한 액수다.

이처럼 결산안 지표상 재정상황은 양호해졌지만, 결국 재정수입구조가 달라지지 않고 있고 연구비 등이 대폭 삭감된 만큼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금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두 계산서 모두 회계연도 기간 내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자료다. 다만 ‘자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의 유출입’만을 기준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예컨대 ‘운영계산서’의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 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 형태로 매년 계산을 하지만 ‘자금계산서’의 경우 건물보수비용으로 지출할 때까지 건물노후에 관한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다.

문화복지시설 2개 업체 할인 중단 GS리테일, “강제할 수 없다”

할인혜택 중단 논란

박기윤 기자 kyoon7230@khu.ac.kr

‘경희의료원 전면플라자 문화복지시설’(문화복지시설) 입점 업체가 제공해온 ‘할인’ 혜택이 일부 업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시행해왔던 업체 중 일부는 할인 혜택을 이미 철회한 상태다. 할인 혜택은 문화복지시설이 지난 5월 11일 공식 개관될 당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음식 가격의 5~10%를 할인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문화복지시설 개관과 함께 할인 혜택을 시행해온 업체는 전체 16개 업체 중 14개(조건부, 일부 상품 포함) 업체였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한촌설령탕’과 ‘비틀주스’는 이벤트 기간이 끝났거나 업체 내부 사정으로 할인 혜택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양장선 운영팀 직원은 “당초 약속했던 할인 혜택을 지키기 위해 업체를 찾아다니며 구성원 대상 할인을 유지해달라 설득했다”면서도

“GS리테일은 입점 업체에 할인을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해 이같은 혜택이 계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나아가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업체마다 수입이 급감하고 특히 ‘한촌설령탕’의 경우 문화복지시설 내 다른 업체보다 원재료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와 방학 시즌이 겹쳐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해서 할인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할인 정책을 중단한 2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할인 혜택을 철회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의치는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양 직원은 “방학이 끝나고 메르스 여파가 지나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할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GS리테일측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현재 문화복지시설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안정이 될 때까지 지켜봐 주면 이용객들이 만족스러워 할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입점업체 할인혜택 시행현황〉			
위치	업체명	당초 할인혜택 시행여부	현재 할인혜택 시행여부
B1	기소야	O	O
	한촌설령탕	O	7월 6일부터 중단
	분애편	당분간 휴업	
	천하제면소	O	O
1F	GS25	X	X
	바비박스	입점 당시 가격 조정	
	로봇김밥	O	O
	망고식스	O	O
	공차	X	X
	비틀주스	O	X
	까페카우아이	O	O(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
2F	글라스스토리	O	O(조건부)
	스테프핫도그	O	O
	빅스	O	O
	명가교동짬뽕	O	O
3F	라운지디	O	O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에 전해드립니다. 유학생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비롯한 학내 이슈를 발로 뛰며 취재합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의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집지는 양 캠퍼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 개의 해외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ilife@kh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